

웃손당[上松堂]¹⁾ 금백주²⁾ 셋손당[中松堂] 세명주³⁾ 알손당[下松堂] 소로소천국⁴⁾ 아들아기 여례
듭[十八], 뜰아기[女兒] 수물⁵⁾ 득[二十八], 손지아기[孫兒] 삼백이른⁶⁾ 득[三百七十八].

소천국은 제주절도섬(濟州絕島) 솟아나고 소천국 베위(配位)는 강남천조국(江南天子國) 벡몰레
왓[白沙田]디서 솟아난 백주마누라 웅데다.

백주또가 열다섯 십오세가 넘으니 천기(天機)를 집떠보고 조선국 남방국(南方國) 제주땅에 가
사⁷⁾ 베플(配匹)이 섬직허여⁸⁾ 제주절도섬 누려옵데다.

소천국광⁹⁾ 네웨간(內外間) 웨여 아들아기[男兒] 뜰아기 많이 솟아나 가니, 흐를날은 백주또가
말을 흐뒈.

“남인(男人)님아 남인님아 영 놀양¹⁰⁾ 어떻⁹⁾ 삽네까? 이 아기덜 어떻 멱여 살립네까? 농소(農事)
를 지읍소서.”

그 말 듣고 소천국은 오붕이굴왓¹⁰⁾ 간 보니 논씨[稻種] 아옵섬 피씨[稷種] 아옵섬지기[九石落]
이십데다. 떠러쉘¹¹⁾ 물아아전¹²⁾ 밧을 간 갈암더니¹³⁾ 백주부인은 징심(點心)을 출리는디 국도 아
옵동이 밥도 아옵동이 이구십팔 여례¹⁴⁾ 동일 출려아전¹⁴⁾ 날라가난 소천국이 말을 흐뒈.

“쉐질메나¹⁵⁾ 더꺼뒹¹⁶⁾ 누려갑서.”

쉬질메 더꺼두고 누려옵데다.

소천국이 밧을 갈더니, 태선절 중이 넘어가단 소천국보고 말을 흐뒈.

“밧 가는 선관(仙官)님아, 징심(點心) 잡수단 남은 밥이나 흐쓸¹⁷⁾ 줍서, 초요기(初療飢)나 멀령 가쿠다.”¹⁸⁾
소천국 생각에는 제가 먹은덜사¹⁹⁾ 얼메나 먹으리 허연,

“그 쉐질메나 걷엉 먹으라.”

무지흔 놈으 주속(子息) 국 아옵동이 밥 아옵동이 말짱 들러먹어아전 돌아나봄데다.²⁰⁾

소천국은 징심이나 먹으카 허연²¹⁾ 간 보난 다 들러먹언 돌아나 부렀구나. 훌수웃이 밧 갈단²²⁾
쉘²³⁾ 손콥으로²⁴⁾ 잡아네 맹게낭자왈 불에²⁵⁾ 구어가멍 익어시니²⁶⁾ 혼 즘[一點] 설어시니 혼 즘

1) 웃손당(上松堂) : 구좌면 송당리(舊左面 松堂里). 상, 중, 하 송당(松堂)의 구별이 있었음.

2) 금백주 : 상송당(上松堂)의 신명. 처신(妻神)임.

3) 세명주 : 중송당의 신명.

4) 소로소천국 : 하송당의 신명. 부신(夫神).

5) 가사 : 가야.

6) 섬직허여 : 있음직하여.

7) 소천국광 : 소천국과. ‘광’은 공동격 -과.

8) 영 놀양 : 이렇게 놀아서.

9) 어떻 : 어떻게.

10) 오붕이굴왓 : 구좌면 송당리(舊左面 松堂里) 지명.

11) 떠러쉘 : 소를 일컫는 말. 마소를 몰 때 ‘어려렁 떠려렁’ 하는 소리하며 모는 데서 된 말.

12) 물아아전 : 물아서.

13) 갈암더니 : 갈고 있더니.

14) 출려아전 : 차려서.

15) 쉐질메 : 소길마.

16) 더꺼뒹 : 덮어두고.

17) 흐쓸 : 조금.

18) 멀령 가쿠다 : 면하고 가겠습니다.

19) 먹은덜사 : 먹은들.

20) 돌아나봄데다 : 도망가 버립니다.

21) 먹으카 허연 : 먹을까 해서.

22) 밧 갈단 : 밧 갈던.

다 먹어도 초요길 멀리질 못흡데다. 묵은 각단밧데레²⁷⁾ 보니 검은 암쉐[牝牛] 훈 머리 놈의 게²⁸⁾ 기염시니²⁹⁾ ‘에, 이놈이라도 먹아사주.’³⁰⁾ 심어단³¹⁾ 뜨려³²⁾ 먹읍데다. 쇠머리도 둘이요, 쇠가죽도 둘을 밧담 우의³³⁾ 걸쳐노난 그제사 요기를 멀립데다.

벡주부인은 징심(點心) 그릇이나 젓오져³⁴⁾ 밧가는 딜 간 보난 소천국은 벳부기로³⁵⁾ 밧을 간다.

“이게 어떤 일입네까? 쉐는 어디 두고 벳부기로 밧을 갑네까?”

“그런게 아니라. 태선절 중의 주속 밥 흐쓸 도렌 흐근테³⁶⁾ 어서 먹으렌 허였더니 문딱³⁷⁾ 먹고 돌아나 부런³⁸⁾ 훌수웃이 초요기(初療飢)나 멀리젠 밧 갈단 떠러쉐 잡아 먹고 묵은 간단밧 감은 암쉐 잡아 먹언 초요기를 멀리고 벳부기로 밧을 갑네다.”

“이거 무슨 말이우까?³⁹⁾ 이녁 쉐[自己牛] 잡아 먹는 건 여우상수주마는⁴⁰⁾ 놈의 쉐 잡아 먹어 시난⁴¹⁾ 쉐도독놈 물도독놈[馬盜賊] 아닙네까? 살림을 분산(分散)하자.”

살림을 갈려간다.

벡주부인은 벤 아길 나아서 쇠설[三歲]이 뒷여가난 “소천국 냄편(男便) 간디나 촉아 보저.” 촉아간 보난 소천국은 총질을 잘허연 사농괴길⁴²⁾ 마쳐다네⁴³⁾ 통노구에서⁴⁴⁾ 괴기를 일혀 먹으멍 살암십데다.⁴⁵⁾

쇠설[三歲]난 아길 부려노난 아바지 무릅에 앗안 삼각쉬(三角鬚)를 뽑아간다.⁴⁶⁾ 가슴팍을 두드려간다 흐니, “불효흐다. 동이요왕(東海龍王)의 띠와불라.”⁴⁷⁾ 무쉐설각에⁴⁸⁾ 담아네 동이요왕의 띠와불데다.

물 우[上]의도 연삼년(連三年) 물 알[下]에도 연삼년, 요왕황제국(龍王皇帝國)을 들어가서 무우남[珊瑚樹] 상가지[上枝]에 걸어지니, 밤인 초롱 첫불(燭火)이 등성⁴⁹⁾하고 낮인 글 읽는 소리가 등성훈다. 이게 어떤 일일런고. 황제국이 말을 하뒈.

“큰뜰아기 나고 보라.”

“든변 난변⁴⁹⁾ 소립네다.”

23) 쉘 : 소를.

24) 손콥으로 : 손톱으로.

25) 맹계낭자왈 불에 : 청미래덩굴 불.

26) 익어시냐 : 익었는가.

27) 각단밧데레 : 띠발으로. ‘각단’은 성장이 나빠서 짧은 띠.

28) 놈의 게 : 남의 것이.

29) 기염시니 : 기고 있으니.

30) 먹아사주 : 먹어야지.

31) 심어단 : 잡아다가.

32) 뜨려 : 때리어.

33) 밧담 우의 : 밭의 담장 위에.

34) 젓오져 : 지어(眞) 오고자.

35) 벳부기 : 배때기.

36) 도렌 흐근테 : 달라고 하길래.

37) 문딱 : 모두.

38) 돌아나 부런 : 도망가 버려서.

39) 말이우까 : 말입니까.

40) 여우상수주마는 : 예상사(例常事)이지마는.

41) 먹어시난 : 먹었으니.

42) 사농괴길 : 사냥고기를.

43) 마쳐다네 : 쏘아다가.

44) 통노구 : 통노구.

45) 살암십데다 : 살고 있읍디다.

46) 뽑아간다 : 뽑아간다.

47) 띠와불라 : 띠워 버려라.

48) 무쉐설각 : 무쇠 석갑(石匣).

49) 든변 난변 : 든(入) 변(變) 난(出) 변(變). 곧 여러가지 변(變).

“셋뜰(次女)아기 나고 보라.”

“든변 난변 소립네다.”

“말잣뜰(末女)아기 나고 보라.”

말잣뜰아기 나고 보니 무우나무 상가지에 무쉐설칵이 걸렸구나.

“큰뜰아기 누리우라.”⁵⁰⁾

못누리운다.

“셋뜰아기 누리우라.”

못누리운다.

“말잣뜰아기 누리우라.”

누단 주깽이로⁵¹⁾ 끼와아전⁵²⁾ 누리운다.

“큰뜰아기 읊아보라.”⁵³⁾

못을아간다.

“셋뜰아기 읊아보라.”

못을아간다.

“말잣뜰아기 읊아보라.”

네눈의 꽃댕이⁵⁴⁾ 신은 발로 툭탁 차니 절로 설강 열려진다. 옥?튼 도령님이 책(冊)을 들고 앗았구나.

“어느 국(國)에서 왔느냐?”

“조선 남방국(南方國)에서 왔습네다.”

“무엇후레 왔느냐?”

“강남천주국 세벤(世變) 막으레 갑네다.”

천하맹장(天下猛將)인 줄 알고 요왕국(龍王國)이 말을 흐ಡ.

“큰뜰 방으로 들라.”

아니 간다.

“셋뜰 방으로 들라.”

아니 간다.

“말잣뜰 방으로 들라.”

절로 설설 들어간다.

말잣뜰아기광 네웨간(內外間)을 맷아놓고, 벡메[白飯] 벡돌레 벡시리 도임상(到任床)을⁵⁵⁾ 층려가도 눈도 아니 거듭떠 보난⁵⁶⁾, 요왕국이 말을 흐ಡ.

“무엇을 먹느냐?”

“쇠[牛]도 전머리⁵⁷⁾ 독[鷄]도 전머리 먹읍네다.”

“내 재간을 가지고 사위 혼나 못멕이야.”

50) 누리우라 : 내리어라.

51) 누단 주깽이로 : 오른쪽 겨드랑이로.

52) 끼와아전 : 끼워서.

53) 읊아보라 : 열어 보아라.

54) 꽃댕이 : 네 개의 눈(唐草紋을 뜻함)이 있는 꽃 당혜(唐鞋).

55) 도임상(到任床) : 성찬을 차린 상의 뜻으로 쓴 것.

56) 거듭떠 보난 : 거들떠 보니.

57) 전머리 : 전마리.

허연 쇠도 전머리 득도 전머리 석돌 열흘 멱여가니, 동창궤(東倉庫)도 비여간다. 서창궤도 비여간다. 요왕국이 말을 헤워.

“이거 아니 웰로구나. 널로 얻은⁵⁸⁾ 시름이니 뜨라아정⁵⁹⁾ 나고 가라.”⁶⁰⁾

요왕국 말잣뜰[末女] 아기 냄편(男便)보고 말을 헤워.

“남인(男人)님아, 남인님아, 아바지안티⁶¹⁾ 강그네⁶²⁾ 무쉐족박⁶³⁾ 헤나헤곡 무쉐방석 헤나헤곡 금동(金銅) 족박 헤나헤곡 상무를에⁶⁴⁾ 메여둔 비리 오른⁶⁵⁾ 몽생이나⁶⁶⁾ 헤나 주민 나가쿠댕⁶⁷⁾ ?롭서.”⁶⁸⁾

“어서 걸랑 그리 헤라.”

황제국의 말을 헤니, 무쉐족박 금동족박 비리 오른 몽생이 내여주고 무쉐설각에 담안 띠와부니, 강남천자국(江南天子國) 들어가서 비리 오른 몽생이 타아전⁶⁹⁾ 천리(千里) 번쩍 만리 번쩍 세벤도원수(世變都元帥)를 막읍데다.

세벤(世變)을 막아놓고 옥황(玉皇)에 축수(祝手) 헤니 옥황상저가 너는 제주땅 들어가서 내왓당 좌정허여 쉐 잡아 전물제(牲物祭) 득 잡아 전물제 받으라 허연 누려온 한집입네다.

- 濟州市 健入洞 男巫 李達春 口誦

윗송당의 당신 금백주와 셋송당의 당신 세명주, 알송당의 당신 소로소천국은 아들이 열여덟, 딸이 스물여덟, 손자는 삼백일흔 여덟입니다.

소천국은 절해고도인 제주에서 태어나고, 소천국의 아내인 백주 또는 강남천자국 백모래밭에서 태어납디다.

백주또가 열다섯 15세가 넘으니 천기를 짚어보고 조선국 남방 제주땅에 가면 배필이 있음직하여 제주섬으로 내려옵디다.

소천국과 천정배필을 맺고 아들 딸이 많이 태어나 가니 하루는 백주또가 말을 하되,

“남인님아, 남인님아, 이렇게 놀면 어떻게 삽니까? 이 아기들은 어떻게 먹여 살립니까? 농사를 지으십시오.”

그 말을 듣고, 소천국은 오붕이굴왓에 가 보니 볍씨 아홉섬 피씨 아홉섬지기 되는 밭이 있습니다. 소를 몰고 가서 밭을 갈고 있더니 백주부인은 국 아홉동이 밥 아홉동이 이구십팔 열여덟 동이의 점심을 차려서 날라가니, 소천국이 말을 하되,

“소길마나 덮어두고 내려가십시오.”

백주부인이 소길마를 덮어두고 내려간 후 소천국이 계속 밭을 갈고 있는데, 태산절 중이 지나 가다가 소천국에게 말을 하되,

58) 널로 얻은 : 너로 해서 얻은.

59) 뜨라아정 : 데려서.

60) 나고 가라 : 나가거라.

61) 아바지안티 : 아버지한테.

62) 강그네 : 가서.

63) 무쉐족박 : 무쇠로 된 쪽박.

64) 상무를에 : 상마루에.

65) 비리 오른 : 옴(疥癬) 오른.

66) 몽생이 : 망아지.

67) 나가쿠댕 : 나가겠습니다고.

68) ?롭서 : 말하십시오.

69) 타아전 : 타서.

“밭을 가는 선관님아, 점심 잡수다 남은 밥이나 조금 주십시오. 배가 고파 요기나 하고 가겠습니다.”

소천국 생각에 설마 먹은들 얼마나 먹으랴 하고는,

“그 소길마나 걷어서 먹어라.”

이 무지한 놈의 자식이 국 아홉동이 밥 아홉동이를 모조리 먹고 달아나 버립니다.

소천국은 점심이나 먹을까 해서 가 보니, 중은 전부 먹고 도망쳐 버렸구나. 할 수 없이 밭을 갈던 소를 손톱으로 잡아서 청미래덩굴 불에 구워 가며 익었는가 한 점, 설었는가 한 점 하며 다 먹어도 허기를 채우지 못합니다. 묵은 땀 밭을 보니 검은 암소 한 마리가 있으니,

“에, 이 놈이라도 먹어야지.”

잡아다가 때려 잡아먹읍니다. 쇠머리도 둘이요, 쇠가죽도 둘을 밭 울타리 담 위에 걸쳐 놓으니, 그제야 겨우 요기가 됩니다.

백주부인은 점심 그릇이나 갖고 오려고 밭 가는 데를 가 보니 소천국은 배때기로 밭을 갈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일입니까? 소는 어디 두고 배때기로 밭을 갑니까?”

“그런게 아니라. 태산절 중이 밭을 조금 달라고 하길래 먹으라고 하였더니, 전부 먹고 달아나 버려 할 수 없이 허기를 채우려고 밭을 갈던 소를 잡아 먹고 묵은 땀 밭에 있는 검은 암소를 잡아 먹어 초요기를 하고 배때기로 밭을 갈고 있습니다.”

“이거 무슨 말입니까? 자기 소를 잡아 먹는 것은 예상 있는 일이지만, 남의 소를 잡아 먹었으니 소도둑놈 말도둑놈 아닙니까? 살림을 분산합시다.”

결국 살림은 갈립니다.

백주부인은 임신했던 아기를 낳아서 세살이 되어가니,

“소천국 남편이 간 곳이나 찾아보자.”

찾아가 보니, 소천국은 총을 잘 쏘아 사냥을 하고 사냥고기를 통노구에서 익혀 먹으며 살고 있습니다. 세 살된 아기를 부려놓으니 아버지 무릎에 앉아 수염을 뽑고 가슴을 때리고 해 갑니다. 그러니, “불효하다. 동해바다로 띄워 버려라.”

무쇠석함에 담아서 동해바다로 띄워 버립니다.

물 위도 연 삼년 물 아래도 연 삼년을 떠 다니다가 용왕황제국에 들어가서 산호수 윗가지에 걸어지니, 밤에는 초롱불, 촛불이 요란하고, 낮에는 글 읽는 소리가 요란합니다. 이게 어떤 일인고. 용왕이 말을 하되,

“큰딸아기 나가 보아라.”

“든변 난변 소리입니다.”

“둘째딸아기 나가 보아라.”

“든변 난변 소리입니다.”

“막내딸아기 나가 보아라.”

막내딸아기 나가 보니 산호수 윗가지에 무쇠석함이 걸려있구나.

“큰딸아기 내려놓아라.”

내리지 못한다.

“둘째딸아기 내려놓아라.”

내리지 못한다.

“막내딸아기 내려놓아라.”
오른쪽 겨드랑이에 끼워서 내려놓는다.
“큰딸아기 열어 보아라.”
열지 못한다.
“둘째딸아기 열어보아라.”
열지 못한다.
“막내딸아기 열어보아라.”
꽃당혜 신은 발로 툭탁 차니 무쇠석함이 저절로 설강하게 열려진다. 옥같은 도련님이 책을 들고 앉아 있구나.
“어느 국(國)에서 왔느냐?”
“조선 남방국에서 왔습니다.”
무엇하러 왔느냐?”
“강남천자국 세변란을 막으려 갑니다.”
천하명장인 줄 알고 용왕이 말을 하되.
“큰딸 방으로 들라.”
눈도 아니 거들떠 본다.
“둘째 딸 방으로 들라.”
역시 눈도 아니 거들떠 본다.
“막내 딸 방으로 들라.”
그제야 스스로 들어간다. 막내딸아기와 천정배필을 맷어놓고, 백메, 백돌래, 백시루떡으로 진수 성찬을 차려 가도 눈도 아니 거들떠 보니. 용왕이 말을 하되,
“무엇을 먹느냐?”
“소도 전마리, 닭도 전마리를 먹습니다.”
“내 재산을 가지고 사위 하나 못 먹이랴.”
하여 소도 전마리 닭도 전마리 석달 열흘 먹여 가니, 동창고도 비고 서창고도 비어간다. 용왕이 말을 하되,
“이거 안 되겠다. 너로 해서 얻은 시름이니 네 남편을 데려서 나가거라.”
용왕의 막내딸아기는 남편에게 말을 하되.
“남인님아, 남인님아, 아버지에게 가서 무쇠 바가지 하나, 무쇠방석 하나, 금동 바가지 하나, 상마루에 매어 둔 비루 오른 망아지 하나 주면 나가겠다고 이르십시오.”
“어서 그것은 그렇게 하라.”
용왕에게 말을 하니, 무쇠 바가지, 금동 바가지, 비루 오른 망아지를 내어 주고 무쇠 석함에 담아 띠워 버리니, 강남천자국에 들어가서 비루 오른 망아지를 타고 천리에 번쩍 만리에 번쩍하며 난을 평정해 놓습니다.
난을 평정해 놓고 옥황상제에게 축수하니 옥황상제가 너는 제주 땅에 들어가서 내왓당에 좌정하여 소를 잡아 전물제, 닭을 잡아 전물제를 받아라 하여 내려온 신입니다.